

서세현 김성희 선교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 Merry Christmas!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불확실한 한해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큼지막한 일들 몇가지만이 한해의 전체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동역자님들은 이 한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이달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삶의 제약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계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

지난 8월 중순과 하순에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미국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4개월만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가족들이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있어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2개월간 선교관에서 머물다가, 선교본부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인 필라델피아 외곽으로 옮겨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키르키즈 사역

서세현 선교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키르키즈 현지대학 KICA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경제학(economics)을 가르치기 시작해 12월 18일에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운영과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사역을 해 오다가 사역대상을 믿음없는 일반 대학생들로 바꾸어 하게 되자 준비과정과 직접 가르치는 일에 훨씬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희 선교사는 이번학기에도 온라인으로 CLS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CLS는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수도 비쉬켅(Bishkek)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1년과정의 기숙형 직업학교입니다.

김성희 선교사는 또한 미국으로 이민 온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겠지만 저희 부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역들에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세현 선교사는 가족 생활지원을 위해 파트타임으로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학교 새생활

아이린은 지역공립학교인 '어퍼더블린 고등학교'(Upper Dublin High School)에서 12 학년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대학들 알아보고 입학준비를 하는 구체적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루카스는 기독교학교 9 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옮겨서 많이 어렵다고 하길래 기도를 더 하게 되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사회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에서 아주 좋게 평가해 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직면한 도전들이 많은 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생생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키르키스탄을 떠나게 되고, 다음단계로 인도하심을 받은 동안 새로운 곳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과정들에 난관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 몇 달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과 보살핌의 일부입니다.

- 미국에 도착한 우리를 픽업해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인데, 선뜻 도와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 데이비스빌 교회 선교관에 연결되어 두 달 동안 감사히 머물수 있었습니다.
- 가족과 뉴저지 동역자님이 지난 7 년 동안 저의 짐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셔서, 이번에 구입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 믿음의 가정과 가족을 통해 이곳에서 필요한 차 1 대씩 제공받아 감사히 쓰고 있습니다.
- 사역지에 있으면서 망가진 식구들의 치아를 치과 의사 친구를 통해서 잘 치료 받고 있습니다.
- 저의 가정의 상황에 맞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 저희 부부가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시간의 일부가 겹쳐 인터넷 활용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한 학기를 감사히 마쳤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직접 칠면조 요리를 하고 호박파이를 만들어서 가족이 감사한 추수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커 가니 지원해야 할 것들도 늘어나지만, 기쁨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올해는 살아있는 나무를 사서 장식하고 창문과 문틀에도 장식을 했습니다. 마음껏 성탄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탄 잘 보내시고, 연말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가 잡히는 밝고, 복되고 안전한 해가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거실에 표현한 우리의 마음

2020 년 12 월 23 일 동역자님들의 사랑에 빛진
서세현, 김성희 (아이린, 루카스) 드림

Chris & Joy Seo
600 Seminole Gardens,
Ambler, PA 19002, USA

joynsei@yahoo.com

267 467 0247 (서세현/Chris)

215 939 7146 (김성희/Joy)

